

한 기업인의 어떤 생각



김승호의
시선

“나쁜 직원은 총살시켜야 한다.”

얼마전 만났던 한 기업인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쁜 말은 말이 기자의 뇌리를 쭈뼛 때리지 않는다.

발언이 나온 배경은 이렇다.

‘나쁜 직원’이란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기업인은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다. 좋은 회사는 좋은 직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좋은’에 대비되는 ‘나쁜’ 직원을 도려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살’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이다.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CEO 입장에서선 일 잘하고, 순종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직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나쁜 직원을 ‘프리라이더(free rider)’ 또는 ‘무임승차자’라고도 한다. 책임을 지지 않거나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함께 누리

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물론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모두 프리라이더라며 싸잡아 비난할 순 없다. 구조적으로 업무가 과도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총살’을 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압적인 직원을 골라내는 것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거기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숙아내는 과정에서 단순히 ‘노킴’이나 개인적일 수 있는 ‘평판’은 안된다. 반드시 정확한 현상 파악과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성급하게 징계를 내리거나 퇴사를 압박하기보단 심도 있는 면담과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주어진 업무가 지나치게 많진 않은지, 업무 역량이 부족한지, 일이 적성에 맞는 지, 보완 교육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건강 이슈가 있는지, 동기 부여가 부족한지 등 원인은 다양하다.

업무 역량이 부족하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성과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능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업무가 맞지 않거나 다른 일에 특기가 있

다면 직무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건강 이슈가 있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휴가 등을 통해 시간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절차나 과정을 모두 거치고도 조직이 끌어안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땐 인사위원회 등 절차 밟아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고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선 더욱 조심스럽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에선 틈만나면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엔 ‘쉬운 해고’가 담겨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선 열띤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오너나 사장님들은 종업원들이 주인 의식이 없다며 늘 아쉬워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인 의식을 갖기보단 주인을 의식하며 일하는 게 더 낫다.

대기업은 주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은 사람의 영향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는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작은 기업일 수록 리더의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

조직에서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는데 ‘총살’이란 단어를 쉽게 꺼내는 경영자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bada@metroseoul.co.kr

알뜰폰 시장,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기자 수첩
조민선 (IT부)

반년에 한 번 더 싼 요금제를 찾아 통신사를 옮기는 일은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번거로움에도 가입자가 몰려 0원 요금제까지 등장했다. 통신사 요금제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례서 남는 게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격적 가격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가능했다. 정부는 2010년 당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도매 가격도 정부가 정해왔다. 이후 통신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를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전액 면제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정책이 반전됐다.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들도 전파사용료의 50%를 내고, 내년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통신망 도매 대가 산정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SK텔레콤이 주도권을 갖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지분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정은 복잡해졌다. 통신망을 재판매하는 중개 사업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는데, 정책 변화로 비용 부담도 커졌다. 한때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업자 일부는 재무 악화로 문을 닫았다. 렌탈 플랫폼 등으로 사업 확장에 성공한 몇몇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큰 벽은 통신사다. 이들은 알뜰폰 시장 초기에 이미 법인 인수와 자회사를 통해 저가요금제 수요를 흡수했다. KT·LG유플러스가 2개, SK텔레콤이 1개를 운영하고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40여개 중소기업체가 나머지 시장을 나눠 가져야 하는

셈이다.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은 금융 기업과도 사정은 다르다. KB국민은행은 5년간 600억원대 누적 적자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세종텔레콤은 2024년 영업손실 60억원을 내고 시장에서 철수했다.

통신 산업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의 결과는 정부 개입이었다. 후발 주자를 키우기 위한 정책은 결국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졌다. 보조금 상한선 마련이 골자인 단통법 시행 전에는 갤럭시 S4가 5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당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던 통신사와 6개월 무료를 내세운 알뜰폰 업체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알뜰폰을 육성하자던 본래의 취지는 흐려졌고, 더 싼 요금제 중심의 경쟁만 남았다. 결국 정부 정책은 알뜰폰 시장 생태계를 기업의 자생력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거대 지분력을 가진 대형 사업자들의 생존 방식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msjo@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 (음 4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60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72년생 소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84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라, 조용히 쉬면 도움이 됩니다.



49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61년생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73년생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85년생 남과 다투지 말고 한발 물러서면 편합니다.



50년생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62년생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74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86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51년생 독선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63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합니다. 75년생 남매만 당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87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52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64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릴 것입니다. 76년생 한 팔을 거들음이 이익이 됩니다. 88년생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옵니다.



53년생 먼저는 흥하고 뒤에는 고통을 얻게 됩니다. 65년생 독한 면을 보임도 이득이 됩니다. 77년생 속을 상하게 하는 자식이 나중엔 효자됩니다. 89년생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54년생 분수에 맞는 투자를 하세요. 66년생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릅니다. 78년생 성에 안차니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90년생 남자의 명예는 돈으로 살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55년생 사기 당하기 십상이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67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태산처럼 무겁습니다. 79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배까지 조심하세요. 91년생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56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집니다. 68년생 일을 벌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80년생 명예도 높이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92년생 하루가 편한 날입니다.



57년생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69년생 서류상의 문제라면 풀릴 기미가 보입니다. 81년생 보험등은 이득을 창출 합니다. 93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입니다.



58년생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풀립니다. 70년생 노력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습니다. 82년생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94년생 애인과의 외출은 흥한 기운입니다.



59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71년생 원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83년생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나도 감정보다 법으로 해결하세요. 95년생 애인과의 여행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목불견첩

‘목불견첩’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남의 허물은 볼 줄 알 아도 자신의 허물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사성어가 그렇듯 역사적인 유래가 살아 숨 쉰다.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진행형 비유가 된다. 목불견첩에 대한 교훈이 자못 실제적이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장왕이 월나라를 치려 하면서 생긴 일화다. 당시 초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 었다. 그런데도 월나라를 공격하려 하니 책사인 두자가 그 이유를 문자 장 왕은 말하기를, “월나라는 정치가 어지럽고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에 두자는 “지혜는 눈과 같아서, 능히 백 보 밖은 보면서도 스스로 그 속눈썹은 보지 못합니다.

왕의 군대는 스스로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에게 패하여 땅 수백 리를 잃었으니 이것이 군대의 약함이고, 국경 안에서 도둑질을 하는데도 관리가 급하지 못하니 이것이 정치의 어지러움입니다.” 초나라가 전쟁에서 연 패 중이고 국내에 도적이 날뛰고 있어 약하고 어지러움이 월나라보다 낮 다 할 수 없는데 월나라를 치고자 하는 것은 ‘눈이 백 보 밖은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만류했다. 초나라 장왕이 이에 정벌 의 지를 그만두었다. 바른 지혜란 남을 보는 데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보는 데 에 있다는 것이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라 풀어 말해 도 좋으리라. 또는 자기 눈 밑의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 며 비난하는 태도라는 비유였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 초장왕과 두자 간에 있었던 일화를 “스스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총명(明)하다고 이른다.”고 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자기 분위의 해석과 견해는 아전인수가 되고 만다. 나르시스트가 많아진 탓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3	4	2		9	6	8
4				8	9	7	
	8						
		2					7
	5		9	1		2	
6					1		
							4
		7	1	9			5
5	2	9		4	8	3	7

5			9	8		2	3
	5	2	6				7
7			8				2
						7	4
6							9
8	9	5					
	8				4		2
	6				2	1	8
1	7		6	5			8

1	2	8	9	7	6	2	9
9	8	2	9	6	1	2	7
8	7	2	2	8	9	1	6
7	6	1	2	9	8	8	9
9	2	8	1	8	6	7	2
2	8	9	7	1	2	6	8
6	5	7	9	2	1	8	7
2	1	2	6	8	1	9	2
8	9	6	5	2	8	2	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